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53호 【루계 제25196호】 주체105(2016)년 2월 22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 길림성교향악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길림성교향악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가 21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제르가 선출되였다.

이어 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력사적인 주체106(2017)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75돐, 김정은원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강화발전시키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것은 조선의 벗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주체104(2015)년 10월 조선의 평양에서 진행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지역별, 나라별로 2017년 태양절 및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뜻깊은 2017년에 백두산성지에 모여 절세위인들을 높이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회합을 열것을 호소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해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김정은원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날들을 의의깊게 경축하며 2017년 백두산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참가할것이다.

다양한 활동으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김정은원수의 불멸의 업적을 스위스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 ※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이슬란드준비위원회가 1월 23일 레이캬비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서기장 존 아르니 할도르쏜이 선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정화 및 통일당과 로씨야자유민주당에서 11일과 13일에 진행되였다.

로씨야정화 및 통일당 위원장을 비롯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는 혁명령도의 천기간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이시였다고 칭송하면서 그이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을 굳건히 담보하였다,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에 의하여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 철통같이 다져졌으며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특출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이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관철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얼마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로 주체조선의 국력이 다시한번 세계에 힘있게 과시된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그들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렇듯 위대한 사변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이께서 건강하시여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자유민주당 국제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월 16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이다.

조선에서는 이날을 광명성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당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그이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며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견지하시여 조선을 강위력한 나라로 건설하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오늘 조선은 핵강국, 우주강국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소식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조선의 핵보유는 철두철미 미국의 군사적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파의 관계발전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으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끼르기즈스딴, 베넌, 나이제리아, 오스트리아에서 1일부터 4일까지 기간에 토론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1942년 2월 16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였다.

조선에서는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고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세기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증되는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천리혜안의 예지에 의하여 조선은 상상할수 없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속에서도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며 조선인민앞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베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인 코토누기자대학 학장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며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나이제리아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집중하도록 하시고 그에 토대하여 전반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신데 대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오스트리아 교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 등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과 탁전설령도업적을 격찬하면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동구호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당의 부름에 결사관철의 뢰성으로 화답할 열의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장에서

《당의 건설방침과 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공사장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한 기세로 이 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난 2월 5일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4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1 000여㎥의 암석굴착을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이 물길공사는 개천시에서 시작되는 수십리의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여 청천강물을 협동법마다에 충분히 보장해주면서도 연풍호의 정상수위를 보장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대에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된 청천강물이 정남관개물길로 흘러들게 되여 황가물을 모르고 농사를 지을수 있으며 수만정보의 면적에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게 된다. 또한 청남관개의 수원지인 연풍호의 정상수위가 보장되여 연풍과학자휴양소가 자리잡은 이 지구의 자연경치는 더욱 멋있어져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게 된다.

이 공사는 청천강에 취수언제를 쌓고 수십리구간에 흙물길과 물길굴, 물다리, 잠관을 비롯한 수십개소의 구조물들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과제이다.

시대의 선구자, 개척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뼈속깊이 새기고 영웅적투쟁으로 화답할 배짱과 투지에 넘쳐 산악처럼 떨쳐나선 청천강의 용사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당의 뜻과 리상을 창조의 기준, 표대로 내세우고 물길공사를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공하자.

이런 결사의 각오로 분발해나선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은 기마수와 같다고 한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긴 이들은 적절한 전방에 지휘부를 정하고 전투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60여만㎥의 암석굴착, 18만여㎥의 콩크리트치기를 해야 하는 물길굴과 언제공사를 주라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로력과 자재를 총집중하면서 다른 대상건설도 내밀도록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또한 각 려단들에서 알선공법들과 창의고안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있다.

모든 려단들에 경쟁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물길굴공사에서 황해남도려단이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곧바로의 정신으로 물길굴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전투명령을 받은 병사의 자세로 공사장으로 달려나온 이들은 압축기실, 천양기실을 비롯한 8개소의 생산건물건설과 도갱굴진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은률군, 송화군, 태탄군, 도람사판리국대대들에서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암질이 무른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천공배치와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1.5배로 높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현재 2월에 계획된 공사량의 90%계선을 돌파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언제공사를 맡은 정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을 결사의 각오와 배짱을 가지고 첫 전투부터 힘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려단에서는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첫 한달동안에 4 000여㎥의 토량굴착과 가물막이를 위한 6 000여㎥의 성토공사를 진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작업도로를 합리적으로 내여 공사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기계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이고있다. 또한 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데서 찾고 앞선 공법들과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순천시, 은산군, 안주시, 정성시대대들에서는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련속룡적을 들이대여 날마다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에 새겨안고 멸쳐나선 남포시려단을 비롯한 다른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자강력으로 만난시련을 뚫고나가며 맡은 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금 청천강의 용사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결사관철의 뢰성으로 화답할 열의에 넘쳐 물길공사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전 명 일

기술혁신성과로 경제강국건설을 추동

함경북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함경북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3대혁명소조원들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해에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20여건의 과제를 포함하여 수백건의 기술혁신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수행에서 3대혁명소조가 한몫 단단히 할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명백히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면서 맡은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또한 절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면서 3대혁명소조원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 과정에 많은 기술혁신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로운 충전제를 만들어 벨트의 수명을 늘이고 빛자욱효과를 리용한 진동수감부를 제작하여 기계설비들의 현대화에 이바지할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로 철정광증산에 기여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로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련합기업소앞에 맡겨진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는데 크게 한몫하였다.

부령함금철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함금철생산에 필요한 무연알탄점결제를 연구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청진장재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도 최풀은도측정의 정확도를 높일수 있는 휴대용단색복사고온계와 가열된 소재들의 온도를 신속정확히 측정할수 있는 수치식온도측정장치를 연구완성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였다.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룡북청년탄광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굴진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는 새로운 발파방법을 연구하여 석탄증산에 기여하고있다.

청진화학섬유공장, 명간화학공장, 경성애자공장, 도송배전부, 라남제약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생산성상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였다.

명간군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의 원료에 의한 벼종자 소독과 성형알모재배, 논버의 병발생률을 낮출수 있는 방도를 비롯한 기술혁신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청진시와 온성군에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통배추재배방법이 나온것을 비롯하여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성과들로 알곡과 남새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였다.

어랑군과 김책시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풍력발전기를 제작하고 소형수력발전기를 기술적으로 개조하여 발전능력을 배로 높인것을 비롯하여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더 높은 기술혁신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리 은 남

흙보산비료원료생산계획 95%계선 돌파

각지 농촌들에서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흙보산비료원료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농촌들에서 흙보산비료원료생산계획을 95%이상 수행함으로써 농사차비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소식에 접한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일군들은 승리의 신심에 넘쳐 흙보산비료원료확보를 위한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개성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토양의 구조를 좋게 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대승전고를 높이 울릴 열의드높이 힘찬 투쟁을 벌렸다. 시에서는 흙보산비료의 주요원료인 너탄캐기에 기관, 기업소, 가두인민반들을 총동원하여 4일동안에만도 7 000여t을 확보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험동농장들에서도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함으로써 실적을 높였다. 결과 시적으로 수만의 너탄과 부식토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북도의 수안군과 금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짧은 기간에 많은 흙보산비료원료를 확보하여 도적으로 계획된 흙보산비료원료를 전부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지를 가지고 흙보산비료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온성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땅을 절제 하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흙보산비료를 지난해보다 1.5배 더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농장들에서는 부식토생산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너탄캐기에도 력량을 집중하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경성, 화대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도 전투적으로 일관을 벌린 결과 도에서는 계획된 흙보산비료원료를 100% 확보하였다.

평안남도에서는 농촌들에서 너탄캐기와 부식토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확보된 원료의 수분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회창군, 덕천시, 북창군, 대흥군이 앞장에 섰다. 특히 회창군에서는 생산해놓은 부식토를 20여일동안에 2만 4 000여t을 실어들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다른 시, 군들에서는 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원료를 실어들이는족족 수분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여 흙보산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황해남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부식토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옹진, 배천군에서는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계획된 흙보산비료원료를 100%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군들에서도 원료확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아침저녁으로 장산이 변하는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순간순간을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일 열정에 넘쳐 련일 혁신을 일으키였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열의에 넘쳐있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흙보산비료원료확보전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식의 휴대용장시간심전계 개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심전계를 비롯한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최근 의학과학원 의료기구연구소에서 우리 식의 휴대용장시간심전계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휴대용장시간심전계는 몸에 24시간이상 휴대하고다니면서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과정에 기록된 심전도자료를 통해 심부전,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혈관계통질병때 부정맥의 발현시간과 종류와 형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진단과 치료효과 등을 판정할수 있게 하는 비관혈적인 검사기구를 말한다.

우리 식의 현대적인 의료기구를 창안할것을 결심한 표해녕, 최명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모든것을 새롭게 착상하고 설계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람을 개발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들은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과정에 기록한 심전도자료를 분석할수 있도록 부정맥진단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한데 이어 여러가지 질병때 자율신경기능의 정형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심박변동분석프로그람을 완성하였다. 결과 몇분간의 심전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활동할 때나 밤에 잠잘 때 나타나는 부정맥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할수 있는 휴대용장시간심전계가 개발되게 되였다.

이번에 개발된 휴대용장시간심전계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장시간 몸에 휴대할수 있게 소형화되고 사업과 생활에서 부정적영향이 전혀 없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동강파일종합가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신 그 업적 영원하리

↑ 과학원 함흥분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6월
← 비날론송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5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4(2005)년 1월

장강3호군민청년발전소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6월

대흥청년영웅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7(1988)년 8월

강계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9월

인민의 태양 영원히 빛난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져 그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했다가도 새롭게 느끼고 알게 되여 심장에 더욱 깊이 새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마련이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 내 집 뒤방에도 당신의 사랑…

인민을 친혈육이상으로 사랑하시며 다함없는 정과 열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을 더욱 그리는 이 노래의 구절구절이 비상한 의미로 안겨오는 속에 이 땅에 2월의 날과 날이 흐른다.

우리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천만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드는 2월.

인민의 어버이로, 만민의 태양으로 빛나시는 우리 장군님,

인민의 뇌리에 영원한 위대한 태양상이다.

불멸할 태양상과 더불어 민족의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인민의 노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버이의 노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울린다.

* *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억센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였다. 그런 세상을 얼마나 갈망하였으면 인류는 오랜 세월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에서, 《유토피아》나 《태양의 도시》에서 그런 리상사회를 찾으려 하였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속에 존재한것이였고 공상의 세계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 가나 슴배여있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퍼지는 오늘 인민은 누구나 우리 장군님의 가장 고결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삼가 뜨겁게 더듬어보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치 못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전력사는 숭고한 인간사랑으로 엮어진 위대한 인간, 탁월한 혁명가의 위대한 행로이다. 오직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질풍같이 달리신 폭풍의 한생이였다.

인간이 지닐수 있는 사랑중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여야 한다. 특히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지녀야 한다!

나의 정치리념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이 로동계급의 당에 들어오는것은 인민에게 더 잘 복무하기 위해서이다. 고생은 남먼저 하고 락을 뒤로 미루며 어려운 일은 스스로 맡아하고 성과는 남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이고 로동계급의 당의 당원이다!

우리 장군님은 이런 걸출한 정치리념을 지니신 혁명의 대성인이시였다.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우리 인민 한사람한사람은 보통인간이 아니였다. 겹겹으로 협산이 막아선다 해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를 신념과 의리를 생명처럼 간직한 위대한 인민이였다.

고생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서야 내가 어떻게 발편잠을 자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높이 떠올릴수 있겠는가!

이 열화의 일념이 위대한 한평생 그이의 심장을 끓어번지게 한 강렬한 지향이였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의 정과 열에 떠받들려 살았는가를 뜨거운 가슴으로 돌이켜보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아무 생각없이 범벅을 먹는 철남이, 어머니를 생각하여 범벅을 따로 감추는 갑순이, 이러한 자식들을 바라보며 하루에 한끼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가슴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흘러가는 혁명가극의 한장면이였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이 장내에 뜨겁게 메아리쳤다.

《피바다》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범벅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파서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인민들에게 아직 고기를 넉넉히 먹이지 못하고있는 나의 가슴아픈 심정을 어머니가 노래하고있다고 생각하였다.

《피바다》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것을 가슴아파하는것처럼 김정일이는 인민들에게 고기를 넉넉히 먹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다. …

비록 몇명의 일군들앞에서였지만 숭고한 뜻과 무게로 울린 심장의 목소리였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먹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하나부터 백까지 자신께서 무조건 책임지고 관심하고 보살펴주어야 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시는 인민의 어버이만이 이렇듯 뜨거운 심장으로 천하를 경륜할수 있는것이다.

자나깨나 《피바다》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나라의 곳곳에 돼지공장, 소목장, 오리공장, 염소목장, 닭공장들을 일떠세우시고 아무리 길이 험해도 다 찾아가보시며 찬바람 몰아치는 날 가파로운 령길을 돌아 북방 멀리까지 가시던 그날의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모습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을 위한 헌신에서 발현된다.

천만의 아들딸들이 꿈결에도 그리워하는 우리 장군님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영광에로 이끌어줄 숭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헌신적복무의 최정지를 개척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한생을 타오르는 불길로 되게 한 그이의 좌우명이 오늘도 천만의 가슴을 친다.

인생이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한생이다!

이런 특출한 좌우명을 신조로 삼은 위대한 혁명가만이 류례없는 헌신으로 인간사랑의 최정지를 개척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한평생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겠다. 우리 인민들은 불편한 점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고있지만 그럴수록 나는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진다.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무엇인들 마다하겠는가. 한번 일을 본때있게 전개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내세우자. 일을 더 잘하여 당에 대한 인민들의 확고한 신뢰와 높은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진다!

우리 장군님은 인민을 위해 이런 위대한 복무정신을 지니신 혁명가이시였다.

어느해인가 길이 험하여 위험천만하기로 소문난 오성산을 다녀오신 어버이장군님께 일군들은 절절히 아뢰이였다.

어찌면 그런 위험천만한 곳까지 가신단 말입니까, 장군님! 다시는 제발…

장군님께서 그런 험한 곳까지 가시게 한 저희들을 인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

나의 정치는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 나는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해줄 생각밖에 없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해주기 위하여 나는 험하기 이를데 없는 오성산에도 올랐고 선군정치를 하였다!

언제나 높뛰는 심장에 오로지 훌륭한 우리 인민, 그 인민을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해줄것인가, 이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우리의 어버이.

오열을 터치는 소리가 뜨겁게 메아리쳤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고 또 찾아가시는 장군님께서 닳은 신발을 신고계시는것이 가슴에 맺혀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신발 한켤레를 정히 올리였을 때에도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나도 동무들과 같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아직은 우리 인민들이 남들처럼 잘살지도 못하는데 인민을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된다고 하시며 끝끝내 만류하신 우리 장군님.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사랑의 력사에서 과연 어느때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를 남기였던가.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였다.

동서고금이 알지 못하는 사랑의 정치로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온 나라를 일심의 화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시고 력사의 그 길에서 후손만대가 무궁토록 번영할수 있는 민족의 명맥, 정신력, 기둥을 억척으로 다지신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을 만나뵙고 외국의 한 정객이 터친 격정의 목소리가 되새겨진다.

《오래동안 소원하던 날이다. 그이를 만나뵙고 오래동안 알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 그이 이시자 곧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

그 위대한 사랑이 비상한 의미로 폭발력을 과시하여 조선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그이의 위업은 백전백승한다.

이는 정의이다.》

인류의 심장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위대한 혁명가의 위대한 한생이였다.

자신의 숭고한 덕망으로 이 땅을 인간사랑의 화원으로 가꾸어주신 어버이장군님.

참으로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사랑하시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우신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는 세상에 없다.

인민의 영원한 태양으로 빛나시는 우리 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세상 전부로 안고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장군님은 영원한 운명의 태양이시다. 그 품을 떠나 존재할수도 없고 그 품에 영원히 안겨살려는 념원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만이 인민의 영원한 태양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감정을 지닐수 있고 태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를수 있는것이다.

무한한 빛과 열로 세계를 비치고 만물에 생을 주는 태양.

은혜로운 사랑의 노래가 꽉 차있는 우리의 가슴에 지난 4년간 우리모두가 받아안고 세계가 받아안은 충격들이 화면처럼 안겨든다.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자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소원이다.

오직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위하여!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심장을 불태우는것은 명실공히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열과 정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려는 숭고한 열망이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한 념원이였으며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정치리념이다.

우리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뿐아니라 락이면 가장 훌륭한 락, 문명이면 제일 멋진 문명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곧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갈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인민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 사는 곳이면 비록 홀로 외진 섬이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있을 때에도 스스로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는 다함없는 정과 열의 세계이다. 인민이 부르는 만세소리가 강산을 진감할 때에만 최후승리가 가장 빛나게, 가장 완벽하게 이룩될수 있으며 이런 승리만이 인민이 승리한 가장 훌륭한 승리라고 할수 있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신조이다.

그 위대한 정치에 매혹된 군대와 인민의 대단결이 무한대한 힘을 폭발시켜 경이적인 현실을 낳고있는것이 오늘의 눈부신 김정은시대이다.

그 거창한 승리를 위하여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희한한 기적으로 인민이 가슴에 행복의 파도를 아름찟 안게 하는것과도 같은 승리의 장훈을 련속 부르시며 폭풍쳐 달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훌륭한 번영을 바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 사는 이 땅에 펼치시려 자강력제일주의로 온 나라를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태양의 위업을 만대로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격동하는 거창한 시대의 창조물들에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그 하나하나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비상한 의미를 안고있는것 아니던가.

우리의 원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화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력하고 공고한것이다.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어떻게 이 땅, 이 하늘아래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승리의 2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2월은 이렇게 소리높이 선언한다.

본사기자 량 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끝없이 밝고 창창한 우리 민족의 미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더불어 꽃펴나는 민족전통

주체의 위성 《광명성－4》호를 우주만리대공에 쏴올려 2월의 광명성절을 더욱 뜻깊게 장식한 끝없는 격정의 환희가 차넘치는 이 땅에 정월대보름날이 왔다. 둥근 보름달이 환히 떠올라 창조와 변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가는 내 조국땅 그 어디나 밝은 빛을 뿌려주는 정월대보름명절!

민족의 향취 한껏 넘쳐나고 투쟁과 랑만으로 벅찬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을 비껴안고서 온 나라 방방곡곡마다에 펼쳐지게 될 이채로운 달맞이 풍경은 또 얼마나 환희로울것인가.

날마다 커가는 기쁨속에, 행복속에 전통적인 민족명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유구한 민족전통을 찬란히 꽃피우고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굽이쳐흐르고 이 땅에 사는 인민들모두가 민속명절을 뜻깊게 쇠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보름달을 좋아하고 사랑하였으며 쟁반같은 둥근달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소원하군 하였다.

특히 정월대보름날 저녁이면 온 동리가 떨쳐나 솟아오르는 쟁반같은 둥근달을 구경하군 하였다.

하지만 하늘도 땅도 빛을 잃었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달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엔 한가닥의 희망의 빛도 더해줄수 없었던 정월대보름날이 아니였던가.

암흑의 그 세월 력사의 이끼속에 희미해져가던 민속명절이 민족의 우수성을 천만의 심장들에 더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날들중의 하나로 빛을 뿌리게 된 사연을 더듬는 우리의 가슴속에 못 잊을 하나의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어느해인가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하였던 일군들을 다시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달빛이 소리없이 부서지는 마당을 거닐며 현지지도의 길우에 꽃펴났던 감동적인 일들을 격정속에 더듬던 일군들은 그이께로 달려갔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차린것은 별로 없지만 다같이 모여 식사나 한끼 하자고 따뜻이 권하시였다.

이윽고 일군들에게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이라고 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월대보름의 유래와 풍속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며 이날을 우리 인민들모두가 즐겁게 쇠도록 하자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인민들이 민속명절을 보다 즐겁고 의의있게 쇠도록 하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설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인민들이 민속명절을 쇠여도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대로 쇠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민속놀이를 즐겨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민속놀이와 같은 문제에도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의 정서생활이 더욱 풍만해질수 있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어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든다.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초소를 찾으시여 평범한 군인들과 몸소 윷놀이를 하시며 그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의 금소방울소리와 더불어 선군시대의 민족적정서가 한껏 풍기도록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우리의 민족성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짝 꽃피워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설수 있었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선률에 맞추어 부르고 옷을 입어도 조선옷을 즐겨 입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펼쳐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몇해전 9월 어느날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룩한 민족전통과 미풍량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찬란히 빛내여주시며 해마다 민속명절을 의의있게 쇠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조국과 민족,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우에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것 아니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꽃펴나는 민족전통과 더불어 세상에서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강성번영할 내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우리 민속명절 정월대보름.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워갈 천만군민의 가슴에 솟는 둥근달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랑만,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득차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린다.

본사기자 강철남

우수한 민족전통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평양민속공원이 전하는 이야기

몸소 건설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주체97(2008)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사리원시 민속거리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의 대성산지구에 사리원시 민속거리같은것을 잘 꾸려놓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공원을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릴수 있도록 학술안을 만들도록 하시였다.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주체98(2009)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속공원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속공원의 이름을 민속공원이 위치하고있는 지역적인 측면과 수도의 이름을 반영하여 《평양민속공원》으로 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에도 평양민속공원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한없이 고결한 의리, 숭고한 민족애

잊을수 없는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겨울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민속공원을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충분히 휴식할수 있게 건설하도록 구체적인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또다시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전문일군들도 미처 관심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장군님을 모시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녕 평양민속공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고결한 의리와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가 낳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귀중한 재보이다.

본사기자

정월대보름에 깃든 사연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민족의 정서와 향취가 넘쳐흐르고있다.

긍지로운 오늘의 현실을 뜨겁게 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과 문화를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우리 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 쇠여온 민속명절인 정월대보름날을 맞이할 때면 가슴뜨거운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주체91(2002)년 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다정히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이 음력으로 정월대보름이라고 일깨워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정월대보름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지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음력으로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는것은 새해 첫달에 맞는 음력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것이라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상전래로 우리 인민들은 이날에 마른나물 9가지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오곡밥을 지어먹었으며 엿도 달여먹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이런 풍속을 잘 모르고있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아이들은 정월대보름날에 해먹는 음식은 물론 오곡에 어떤 곡식들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른다고, 옛날부터 오곡이라고 하면 벼와 기장, 조, 보리, 콩을 말하였는데 여러가지 곡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월대보름날이 어떤 날이며 무슨 음식을 만들어먹는가 하는것과 같은 상식들도 알려주며 달력이나 탁상일력에도 정월대보름날이라고 쓴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써넣는것이 좋겠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잊지 못할 그날 일군들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민족의 전통이 빛나고 번영하는 내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있다는 생각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시면서도 이렇듯 민족의 풍속을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그런 령도자가 또 어디에 있었던가.

주체92(2003)년 1월 중순에도 또다시 우리 민족이 력사적으로 쇠여오던 정월대보름명절을 즐겁게 쇠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이렇듯 력사의 갈피속에 묻혀버릴번 했던 정월대보름명절은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우리 인민이 즐겨 쇠는 민속명절로 다시 꽃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위업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의 고유한 향기, 민족의 유구한 전통과 풍습은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수 필‖

국 보

민족의 향기가 한껏 넘쳐나는 정월대보름이다.

한없는 민족적긍지를 안고 정월대보름날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이 나에게 안겨들었다.

희열과 랑만에 넘쳐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문득 나에게는 잊을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민족의 고유한 민속유산을 잘 알도록 하는것은 사람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북돋아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얼마전 나는 사회과학원의 한 일군인 공명성동무와 마주앉게 되였다.

머지않아 정월대보름이라 우리의 화제는 자연히 민족전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의 민족전통에 대한 책을 우리 식으로 완성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도서를 만드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적인 편찬위원회도 조직해주시고 해당 전문가들과 일군들로 집필집단을 무어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책의 제목과 기본구성체계, 권수와 출판부수, 도서의 집필과 발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모두 7권으로 된 도서 〈조선의 민속전통〉이 세상에 나오게 되였습니다.》

그 일군이 하던 말이 수도의 거리를 걷는 나의 귀전에 울리고있었다.

행복의 무아경에 빠져 시간가는줄 모르고 연띄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에 여념이 없는 천진란만한 아이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조국의 모습인가.

생각이 깊어질수록 도서 《조선의 민속전통》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넋과 슬기, 찬란한 문화와 전통이 집대성되여 있는 더없이 소중한 재보이라는 느낌이 나의 폐부에 흘러들었다.

돌이켜보면 나라없던 지난날 일제의 군화발밑에서 자기의 성과 이름은 물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력사책들마저 빼앗기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톡톡히 감수해야만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 인민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전통을 대를 이어 전해가며 세세년년 사회주의 만복속에 사는것이다.

눈길을 돌려 세계를 둘러보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세계화바람의 희생물이 되여 민족은 있어도 민족성은 사라지고 선조들이 창조한 민속은 있어도 전통의 대가 끊긴채로 력사의 락엽속에 묻히는것이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의 실태이다.

정월대보름의 흥에 겨워 누구인가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내 마음의 금선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구성진 아리랑곡조의 그 노래소리가 귀전을 세차게 울릴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심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식생활풍습, 옷차림풍습, 로동생활풍습, 민속명절과 놀이, 민속음악과 무용, 구전문학과 민속공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족전통이 집대성되여있는 도서 《조선의 민속전통》.

그것은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이루어놓은 민족적인 모든것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 절세위인의 위대성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국보이다!

본사기자 김일권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전투력이 강한 녀성집단의 야전형지휘관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원산시직매점 지배인 최향동무

원산시직매점은 시에서는 물론 도적으로도 전투력있고 동지애넘치는 녀성집단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들은 인민경제계획수행은 두말할것도 없고 군중예술활동에서도, 전장태권도나 대중률동체조와 같은 대중체육활동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 여러 발전소건설장들과 소금생산기지 등 중요공사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기될 때마다 단연 앞장서군 했다.

일이 잘되는 집단에는 반드시 쇠소리나는 지휘판이 있다. 원산시직매점 지배인 최향동무가 바로 그런 야전형지휘관이다.

주저앉았던 단위를 맡아 강원도는 물론 전국의 시, 군직매점들가운데서 맨 처음 3중3대혁명붉은기집단으로 만든 최향동무.

근 20년세월 실천행동으로 종업원들을 이끌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그의 인생관은 참으로 고결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최향동무가 원산시직매점 지배인사업을 시작한것은 1997년 8월초였다.

당세포비서와 인사를 나누자 최향동무는 종업원들의 가정부터 찾았다. 너나없이 어려운 때여서 어느 집이나 쌀독은 비여있었다. 동명산지구에서 사는 리명희동무를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어떻게 하나 제 살림은 가정주부인 우리가 책임져야지요.》라고 하며 아글타글하고있었다. 기특했다. 제 집살림을 제손으로 강인하게 꾸려가는 그들이 돋보였다.

당세포비서와 함께 며칠동안 상동에서 갈비지구로 그리고 해안지구, 동명산지구로 종업원들의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만나보니 신심이 생깁니다. 제 집살림을 제가 꾸려가려는 저 마음들을 묶어세우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종업원들을 이끌어 봉사활동을 본때있게 벌려갈 심정을 터놓는 지배인에게서 당세포비서(당시) 김옥선동무는 눈길을 떼지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만 할것이 아니라 시련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교류상품구입에 힘을 넣자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몸집 작은 신입지배인, 일부 사람들이 그가 지배인으로 임명받았을 때 걱정과 우려를 표시했더지만 얼마나 당돌하고 자신감에 넘쳐있는것인가.

사실 그때까지 상업활동경험이나 지식이 별로 없었던 최향동무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때로부터 스무해가 되도록 선박수리공장에서 로동생활을 하면서 원산시당학교를 나오고 자그마한 단위책임자로 1년 일한것이 그의 경력의 전부였다. 하지만 최향동무는 로동생활속에서 단련된 울끈고 담찬 성격그대로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가 믿은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힘, 집단의 힘이였다.

《우리모두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힘을 믿으면 천리도 지척이라고 하지 않나요.》

신심으로 충만된 최향동무의 작은 두손을 당세포비서 김옥선동무는 조용히 그러쥐였다. 텅비다싶이 한 한적한 직매점의 매대나 텅텅한 사무실책상우에 놓인 적자장부, 대부금장부가 아니라 종업원명부부터 먼저 보고 품을 놓고 가정방문하는것으로 자기 사업의 첫걸음을 뗀 신입지배인의 마음이 가슴후덥게 안겨왔던것이다.

며칠동안 직매점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최향동무는 교류상품확보와 원료기지조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그는 종업원들과 함께 상품교류를 위해 배낭을 지고 나섰다. 모두가 만류했으나 그의 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원산시는 물론 평양과 평성, 신의주와 멀리 청진과 혜산 등 온 나라 각지를 발이 닳도록 다니는 체소한 그를 직매점지배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평양시안의 구역직매점 지배인들은 교류상품구입을 위해 여름철에는 땀을 철철 흘리며 오고 한겨울추위에 새파랗게 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갓 40살에 난 원산지배인을 맞을 때면 누구나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장마비내리던 어느 여름날 평양시의 한 구역직매점에서 교류상품을 접수하자 그길로 길떠날 차비를 서두르는 최향동무를 그곳 지배인이 서둘러 붙잡았다. 그가 신은 편리화뒤축이 닳아서 터진것이였다.

요전번 직매점에 들렸을 때까지만 해도 참락한 평양편리화를 신으니 천리라도 날것 같다고 하던 원산지배인의 그 편리화였다. 그런데 스무날도 안되여 이렇게 판이 났으니 몸집 작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걸었으랴 하는 생각으로 지배인은 다시금 최향동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을 맞고 해볕에 타서 가무스름하게 된 얼굴, 두손이 터다 못해 갈실갈실해지고 발잔등에까지 동그랗게 판 자리가 또렷하게 찍혀져있는것이 아닌가.

새 편리화를 꺼내주며 지배인은 그러다 몸져눕기라도 하면 어쩔셈인가고 걱정했다. 진정이 울리는 그 말에 최향동무의 눈시울이 붉긋해졌다.

《우리가 맡고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면서도…》

그러고는 함께 온 종업원과 총총히 먼길을 떠나는 최향동무를 바래워주는 지배인의 가슴은 마냥 뜨거워났다.

빈 배낭차림으로 올 때도 그렇고 상품이 불룩하게 든 커다란 배낭을 메고서도 걷는것이 안타까운듯 노상 저렇게 달음박질치듯 하는 이악쟁이 원산지배인. 그러나 새 신발이 스무날도 안되여 판이 나지 않을리 만무했다. 지배인인 그가 상품배낭을 지고다니지 않는다고 하여 탓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애오라지 8월3일인민소비품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한몸바쳐 받들어갈 일념으로 헌신적복무의 길을 걷고걷는 저런 인간이 바로 당이 바라고 인민이 사랑하는 진짜배기봉사일군, 인민의 참된 충복이 아니겠는가.

최향동무도 두 자식을 가진 어머니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이 있는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 뒤전에 있었다.

비록 아직은 상업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어도 그는 상업봉사자들은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전달자가 아니며 자력갱생정신을 체질화한 창조자,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철리로 뼈에 새기고있었다. 난관이 첩첩일수록 이런 사명감을 더욱 억세게 가다듬는 그였다.

지배인을 따라 너도나도 떨쳐나 상품교류활동을 벌리는 종업원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매대들에 갖가지 상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최향동무의 가슴속에서는 상품배낭들을 지고 시내는 물론 각지로 다니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앞으로 상품은 점점 늘어날터인데 한뉘 그렇게 등짐으로 져나를수 없지 않은가.

그는 자체로 자동차를 되살릴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자동차를 바라보는 종업원들의 인상은 밝지 못했다. 그 모습들을 보며 최향동무는 자동차를 되살려내는 이 일을 계기로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 자기 힘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갈 사상적각오를 굳게 심어주리라 결심했다.

그는 차수리에 능한 기술자들을 찾아, 필요한 부속품, 자재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리에 자개바람이 일도록 시내를 돌았고 수십리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때로는 자동차수리현장에서 불등치를 들고 기술자를 도와 밤을 패는 그를 따라 누구나 떨쳐나섰다.

드디여 자동차는 발동소리를 터쳤다. 모두의 얼굴에 희열이 넘쳐났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자동차가 자기들의 손끝에서 활력을 찾은것이였다.

최향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자동차에 자급비료를 가득 싣고 법동군 명지리(당시)의 원료기지로 첫 운행길을 떠났다. 자기들이 되살려낸 자동차에 올라 원료기지로 향하는 종업원들의 눈앞으로 비탈진 밭을 기름지게 만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녀성들의 힘으로 밭을 개간하는 전투는 헐치 않은 작전이였다. 삶은 통강냉이를 씹으면서, 가랑잎을 깔고 새우잠을 자면서 나무등걸들을 뽑아내고 바위돌을 들추어내던 그 나날 최향동무는 무쇠땅크로, 왕드살돌격대장으로 불리웠다. 여럿이 달라붙어도 움적하지 않던 나무등걸도 지배인이 용을 쓰면 무우처럼 뽑혀나왔다. 언자돌같은 바위들도 그의 손에서는 배겨내지 못했다.

새로 개간한 밭에 진거름을 져나르던 그때에도 최향동무의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였다. 비탈길이건만 남들보다 더 큰 거름짐을 지고도 억척스럽게 밭으로 오르는 지배인을 보며 종업원들이 특수체질이 아니고서야 어쩌면 저렇게 항상 다기찰가 하고 감동을 금치 못하군 했다.

어느날 일터의 쉴참에 김옥선동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 입을 싸쥐고 웃음보를 터뜨리던 최향동무는 이런 말을 했다.

《제가 무슨 특수체질이겠어요. 그저 우리 직매점을 누구나 즐겨찾는 봉사기지로 만들수만 있다면 저 하늘에라도 날아오르고 싶은데요 뭐.》

밭머리에 앉아 자기 심정을 터놓으며 멀리 청명푸하늘가를 바라보는 최향동무의 눈굽은 이름못할 그리움에 젖어있었다.

인민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며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면 장군님께서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찬 우리 직매점에 들리시여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간절한 마음안고 최향동무는 목에서 겨불내가 나는것도 아랑곳없이 비탈길을 오르고올랐다. 대오앞에 휘날리는 기발처럼 앞장에 선 암팡진 지배인을 따라 종업원들은 진거름을 이악하게 져올렸다. 드디여 백수십t이나 되는 진거름을 몽땅 져올린 그날이였다.

《수고들 많았어요. 우린 기어이 제힘으로 원료기지를 마련했어요.》

자기의 머리칼 오리오리에 맺혀있는 땀방울을 씻을념없이 종업원들의 땀젖은 옷들을 어루쓰는 최향동무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업원들의 눈굽도 축축히 젖어들었다. 행복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봄날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체소한 몸으로 남들보다 더 큰 거름짐을 져나르면서 지배인이 격정에 젖어 이야기하던 사연깊은 철령의 아흔아홉굽이가 보이는것만 같았다.

전선길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최향동무와 종업원들은 련이어 22명의 로력으로 돌격대를 뭇고 12월의 강추위속에서 18일동안 100㎡의 생활건물을 건설하였으며 이듬해에는 5개월동안에 총수백㎡의 염소우리와 돼지우리, 소우리, 양어장과 온실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목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적하던 직매점은 누구나 즐겨찾는 봉사기지로 되였다.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하나로 뭉쳐 제힘을 믿으면 강자가 되고 남을 쳐다보면 약자가 된다는 투쟁의 진리를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하지만 최향동무에게는 만족이란 없었다. 주민들에게 한가지 소비품이라도 더 안겨주기 위해 시안의 공장들로 종주먹을 쥐고 달렸고 여전히 인수원, 짐임자가 되여 화물자동차에 몸을 싣고 상품교류의 길을 이어갔다.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식료가공반과 옷가공반, 불통생산반과 비누생산반, 회솜생산반을 조직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가던 그는 이판받은 2층짜리 생산건물과 부속건물, 차고를 자체로 개건한것을 발기했다.

인민의 충복된 책임을 다하려고 아글타글하는 지배인을 따라나선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건물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건물안팎벽체미장과 바닥포장에 이어 건물의 늪창말기가 진행되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동무들과 함께 자정이 지나도록 늪창말기를 하고 현장에서 쪽잠에 들었던 홍명옥동무는 따스해지는 감촉에 눈을 떴다. 자기의 어깨에 씌워진 자그마한 웃옷, 그것은 지배인의것이였다.

《해 좀더 자지 않고…》

수첩을 말리던 원주필을 든채 눈가에 미소를 짓는 지배인을 보는 홍명옥동무는 속이 찡해왔다. 직매점을 주민들이 사랑하는 봉사기지로 꾸리는 문제로부터 종업원들의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쓰며 사색하고 뛰고뛰느라 도대체 잠이란 통 모르는 지배인이였다. 종업원자식들의 진강과 장래문제를 위해 병원으로, 학교로 줄달음을 놓기도 하고 혼자 사는 종업원들을 위해 원심을 쓰며 두팔을 걷고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준 지배인.

직매점과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바삐 다니는 그는 언제 한번 편히 쉬여본적이 없었다. 간혹 원료기지에서나 상품교류의 길에 오른 자동차에서 그리고 오늘처럼 꾸리기를 하다 잠시잠간 쪽잠에 들었다가도 무슨 일감을 또 궁냥했는지 소스라치듯 깨여날 때면 지배인의 입에서 《또 일을!—》 하는 큰소리가 막 튀여나오는듯싶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이면 옷가공반에서 쌀 재봉기, 자투리천들이 생겨났고 비누생산용 원자재를 구하러 지배인은 먼길을 떠났으며 축산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드는 세멘트, 목재들을 실은 자동차를 탄 지배인이 도착하군 하였다.

종업원들이 입을 모아 그래서야 무쇠로 만든 몸인들 견디겠는가고, 지배인, 종업원이 똑같이 함께 자고 깨여나는 합숙을 짓자고 할 때면 지배인은 언제는 나더러 땅크, 돌격대장이요 하며니, 난 이렇게 새날을 맞을 때면 날개가 돋는것만 같은데 하며 우스개말로 얼버무리군 했다.

무쇠땅크, 왕드살돌격대장, 이 말을 종업원들이 사랑과 존경담아, 자랑삼아 즐겨 외웠으니 체소한 지배인이 완력이 드센 억대우같은 남자들도 쉽게 받지 못하는 이런 별칭으로 불리우기까지 바친 열정과 노력은 그 얼마나 불같은것이랴.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념원을 받들어 인민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

홍명옥동무에게는 난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지배인이 큰 수술을 받은 후 병원침상에서 있었던 일이 저도모르게 돌이켜졌다.

수술후 몸을 좀 가누게 되자 최향동무는 직매점으로 가겠다고 떼를 썼다. 불통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그걸 아직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있으니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라는것이였다.

홍명옥동무도 고집스레 만류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이라면 각지를 뒤져서라도 가져와야 한다고 하며 교류상품을 마련해오던 나날 고장난 자동차와 함께 눈비맞으며 바람세찬 길가에서 지새운 밤이 그 얼마이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감탄하도록 원료기지와 목장을 꾸리느라 사계절 종업원들의 앞장에서 흘린 땀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으며 또 떠나간 시어머니와 당사업을 하는 설향이아버지 그리고 두 딸자식이 겪은 고생은 좀 많았는가고, 그렇게 몸을 돌보지 않고 팔방돌이하다싶이 했으니 끝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고 눈물을 씻으며 울음을 터뜨리던 홍명옥동무의 두눈이 갑자기 휘둥그래졌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나올것 같지 않던 지배인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히는것이 아닌가.

《명옥이, 내가 말리는 살수 없는 사람인줄 동무도 알지 않니.》

말리는 살수 없는 사람.

그랬다. 그는 반일애국렬사유자녀였다.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정다한 아버지로부터 그가 이어받은것은 순결한 충정이였고 애국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떠받드시는 인민을 위해 걷는 멸사복무의 길은 바로 선렬들의 넋을 이어 영원히 걸어갈 충정의 길이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8월3일인민소비품봉사를 잘하여 인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고 그처럼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왔던것이다.

최향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원산시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던 그 나날 충정의 한마음을 바치였다. 그는 원군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3차례에 걸쳐 받아안았고 2014년 한해동안에만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여러차례에 걸쳐 기쁨을 드리였다. 해마다 자체로 생산한 빨래비누를 주민들에게 정상공급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도안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에 보내주고있다.

이 나날 원산시직매점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4년 상품류통액계획을 130%로, 지난해에는 전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99%로 넘쳐 수행하였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모범을 보여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2014년과 2015년 두해에 걸쳐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처음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때로부터 9년만인 2008년에 원산시직매점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하나로 뭉친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소문난 직매점에서는 림영옥, 홍명옥, 최화영, 김명옥, 어명숙, 김영숙, 백옥희, 리명희동무들과 같은 강원도와 원산시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도급, 시급기업소들을 책임진 쟁쟁한 일군들이 배출되였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과 헌신적인 실천으로 종업원들을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키운것이 최향지배인의 공로중의 공로이고 그가 마련한 재부중의 재부이라고 뜨겁게 추억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치곤

최향동무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 길림성교향악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1일 중국 길림성문화청 부청장 소위가 인솔하는 중국 길림성교향악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초침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2.8직동청년탄광 5갱 채탄5중대장 리정국동무는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은 그는 평범한 탄부에게 베풀어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보답할 충정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신작칙의 실천적모범으로 중대를 이끌고있다.

한번은 중대앞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막아섰을 때였다. 채탄막장에 큰 짐이 실려 석탄생산이 중지되였던것이다.

막장을 빨리 복구한다고 해도 20여일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모두가 손맥을 놓고있을 때 리정국동무는 붕락된 막장에 들어가 짐받은 상태를 직접 확인한 다음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자체의 힘으로 막장을 복구하고 석탄생산에 들어가자고 중대원들을 불러일으키며 앞장에서 막장을 복구해갔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석탄증산으로 기어이 보답할 결사의 의지를 안고 그는 탄부들과 함께 힘찬 전투를 벌려 예정했던 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막장을 복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달에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캐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오늘도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의 초침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동통신원 김청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위훈을 떨칠 열의에 넘쳐있는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

황해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옹진군 제작리는 군의 서부 읍저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고있다.

멀리로는 원쑤들의 소굴인 백령도가 바라보이는 바다가마을의 작은 학교운동장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

지난해 11월 어느날 옹진군 제작고급중학교 교장방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에 다닌지 오랬단 말이지요.》

《…》

감독원 한철준동무의 말에 교장은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한철준동무로부터 제작고급중학교 통학뻐스의 운영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황해남도의 차량감독소 소장 한일호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옹진군 제작리라면 적들의 소굴인 백령도가 바라보이는 곳이 아닌가?)

바로 그랬다. 통학뻐스를 살리는 문제는 단순한 교육지원사업이 아니였다.

그 통학뻐스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학거리가 먼 이곳 학생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사랑의 뻐스였다. 그 뻐스와 함께 학교에는 집이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생겨나게 되였고 학생들은 날마다 커가는 사랑속에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다.

그러나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은 이 학교에도 아픈 상처를 남겨놓았다.

날로 어려워지는 연유와 부속품사정으로 통학뻐스의 경적소리가 뜸해졌던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원쑤들이 아이들의 밝은 웃음까지 없애려고 미쳐날뛴다고 생각하니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합시다.》

이것은 한일호동무가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에게 한 말이였다.

이렇게 되여 하루사이에 제작고급중학교에 있던 통학뻐스가 200리가 넘는 차량감독소마당으로 옮겨졌다. 수리전투가 시작되였다. 필요한 부속품만 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호, 김철진동무를 비롯한 차량감독소의 당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학뻐스를 양력설전으로 수리해낼것을 다짐했다. 통학뻐스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있었다. 철판과 용접봉, 피스톤을 비롯하여 수리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구해온 한일호동무의 이신작칙은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을 크게 분발시켰다. 김학성, 한철준, 리경춘동무들이 소장의 뒤를 따랐다. 박귀철, 리승구동무들은 수리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안해들도 발벗고 나섰다.

그 나날에는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도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끝끝내 고장난 제동장치를 수리해온 이야기도 있었고 휘발유뽐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자 여러번이나 분해하면서 고장원인을 해명한 일도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뻐스수리현장에서는 이런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귀철동무, 난 이 통학뻐스를 볼 때마다 수십리길을 매일 걸어다닐 제작리 아이들이 생각나오. 우리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셨는데 난 아직…멀었소.》

《소장동무, 그래서 이렇게 한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번 기회에 아예 새 차처럼 만들자는겁니다.》

박귀철동무의 말에 주위에서는 웃음꽃이 피였다.

그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차창유리도 밝은것으로, 의자들의 씌우개도 제일 좋은것으로…

통학뻐스의 바깥도색을 할 때였다. 이왕이면 본래대로 도색만 하지 말고 해바라기를 크고 곱게 그려넣자, 척 보기만 해도 우리 학생들의 차라는것을 누구나 알게 하자는 한일호동무의 제기에 모두가 환성을 올렸다.

통학뻐스를 수리하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자면 끝이 없다.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의 진정속에 통학뻐스수리는 불과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자식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는것은 부모의 심정이다. 새 차처럼 된 통학뻐스를 학교로 떠나보내게 된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의 심정이 그러했다. 그처럼 정을 부은 뻐스를 보내자니 기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다. 뻐스수리가 진행되던 나날 모두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있었다.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위해 무엇인가 바친다는 긍지와 보람이 그들모두의 마음을 기쁘게만 했던것이다.

통학뻐스를 쓰다듬으며 아쉬움과 기쁨을 금치 못해하는 감독원들을 바라보며 한일호동무의 머리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학교가 읍에서도 100리나 떨어진 먼곳에 있는것만큼 웬만한 수리는 자체로 할수 있게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갖추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장의 이야기를 들은 감독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빈차로야 어떻게 보내겠는가고, 이왕이면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기념이 될만 한것을 보내자고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팔걷고나섰다.

이렇게 되여 통학뻐스는 차수리에 필요한 예비부속품과 수리공구들, 액정텔레비죤과 콤퓨터, 200여점의 교구비품과 학용품 그리고 교원들을 위한 수십벌의 솜옷은 물론 학생들의 내의까지 싣고 떠나게 되였다.

지난해 12월 25일 제작고급중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학부형들은 흥분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있었다. 통학뻐스를 기다려 아침부터 큰길가에 나와있는 그들이였다.

이윽고 멀리서 빵―빵― 하는 경적소리와 함께 뻐스 한대가 신바람나게 달려왔다.

《우리 통학뻐스다.》

소리치며 달려가 통학뻐스를 둘러싸고 좋아라 어쩔줄 몰라하는 학생들, 그 모습을 보는 교원들과 학부형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뻐스에 오른 그들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다.

통학뻐스를 새것처럼 수리해준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많은 예비부속품과 교구비품들 그리고 두툼한 솜옷까지 가득가득 실려있는것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였다.

여러가지 상비약품들이 차곡차곡 들어있는 비상용약함도 놓여있었다. 통학뻐스가 수십리길을 오가는것만큼 혹시 학생들속에서 환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그래서 통학뻐스안에 비상용약함도 갖추어놓았다는 한일호동무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원들은 물론 곁에 있던 군일군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단순한 애정으로야 어찌 조국의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을 대신할수 있겠는가.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그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 한걸음을 걸어도 어머니당과 숨결을 같이하며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참된 사람들만이 이렇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줄수 있는것이다.

통학뻐스는 학교에 도착한 그날로 좋아라 웃고 떠드는 주인들을 태우고 경적소리 높이 울리며 마을들을 찾아떠났다.

빵― 빵―

해안연선마을에 높이 울리는 통학뻐스의 경적소리, 그것은 정녕 이 땅 그 어디에나 끝없이 울리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메아리이고 온 나라 아이들이 목메여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였다.

그후에도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은 사소한 이상이 있을세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통학뻐스의 운행을 적극 도와주었다.

우리는 황해남도의 차량감독소 일군들과 감독원들의 이름을 다 적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정답게 울리는 통학뻐스의 경적소리와 더불어 연선지역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 깊이 새겨져 있으리라.

본사기자 홍성철

크나큰 환희속에 맞이한 우리의 민속명절 — 정월대보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있습니다.》

해빛도 따사로운 이 나라 강산에 즐거운 민속명절이 왔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 정다웁고 조국땅 방방곡곡에 민족의 넋과 따뜻한 정 넘쳐흐르는 우리의 민속명절—정월대보름.

우리는 해마다 기쁨과 환희속에 이 명절을 맞는다.

온 나라 가정들의 탁력에 명절로 올라있는 정월대보름,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받들려 더욱 즐거운 이날이 오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대대손손 전해져오는 민속풍습을 가슴마다에 새기며 즐거운 명절의 하루를 보낸다.

하다면 올해의 이 뜻깊은 민속명절을 우리 인민은 어떻게 맞이하고있는것인가.

명절을 앞두고 제일 바쁜 사람들은 우리 가정주부들이다.

명절 하루식사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민속풍습대로 귀밝이술이며 오곡밥, 9가지 나물찬 등을 대접하기 위해 드바쁜 시간을 보내는 그들이다.

명절을 하루 앞둔 일요일아침 락랑구역 통일거리 1동에 사는 리병춘로인의 집에 웃음꽃이 피였다.

《오곡밥과 9가지 나물에 어떤것이 속하는지 좀 대주십시오.》

이러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집 새아기의 모습을 보는 리병춘로인의 마음은 무등 즐거웠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맞는 정월대보름에 시부모님께 제손으로 만든 민족음식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했다.

그 마음을 읽으며 리병춘로인은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그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한테 대주느라 써넣었던지네.》

벼, 기장, 조, 보리, 콩(팥)으로 오곡밥을 만드는 방법이며 무우잎, 고사리, 무우오가리, 도라지, 고구마줄기, 호박오가리 등 가을철에 흔한 음식재료들로 9가지 나물찬을 만드는 방법이 종이장에 다 적혀있었다.

그것을 펼쳐들고 줄곧 웃음꽃을 날리는 이웃집새아기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리병춘로인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정월대보름날 오곡으로 밥을 지어먹은것은 구수한 오곡밥이 건강에도 좋지만 새해에도 풍년이 들고 오복이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고있었기때문이다.

오곡밥에 곁들이는 반찬으로 9가지 나물을 드는것은 지난시기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9가 한자리수의 마지막수인 동시에 많다는 뜻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았기때문이다.

그래서 9가지의 나물로 음식을 만들어먹으면 많은 나물을 섭취하게 되는것으로 여겼으며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는 의미를 가지였다. …

집문을 나서려는 새아기에게 로인은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곡밥은 낟알들의 랑을 갈이하고 하루밤정도 미지근한 물에 불구었다가 뜸을 푹 들이면서 되직하게 짓는것이 좋다네.》 …

명절을 앞둔 며칠전부터 새 연을 만들어달라며 졸라대는 아이들,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풍습대로 여러가지 민족음식과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준비하며 흥성이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가정들이다.

이런 감미로운 정서속에 또 하나의 큰 관심사가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였다.

정월대보름날의 달맞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한해중 제일 크고 밝은 대보름달이 하늘중천에 떠오르는데야.

선조들이 남긴 옛 기록에는 우리 민족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맞이한 정월대보름의 달맞이풍습가운데는 달구경을 하면서 자기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의 정월대보름달을 먼저 보면 좋각에게는 달처럼 환한 처녀와 짝을 못는 기쁜 일이 생기고 자식이 없어 안타까와하면 부부에게는 귀여운 아기가 태여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아싣고 련면히 이어져오는 민족풍습대로 오늘도 사람들은 달맞이를 하러 간다.

며칠전 우리가 회근집에 문수—2땍무궤도전차에 올랐을 때 등뒤에서 청춘남녀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어제 텔레비죤으로 날씨예보를 보니 정월대보름날에 흐리겠다던데…》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어디에서 달구경을 하는가 하는 지요.》

돌려보니 그들만이 아니라 무궤도전차에 오른 다른 사람들도 정월대보름달맞이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고있는것이였다.

김일성광장에서 달맞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며 당의 품속에 멋쟁이선경거리로 일떠선 대동강반의 아빠트들과 모란봉에 올라 달구경을 하겠다는 사람들, 저마끔 생각을 굴리며 달맞이장소를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은 절로 즐거웠다.

명절을 며칠 앞둔 저녁이라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에 넘치여있었다. 그토록 벼르고벼르며 맞맞이저녁을 기다려온 그들이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하늘에 솟아오르는 정반같은 둥근달을 보려고 어깨성을 이루게 될것이리라.

녕변의 약산동대며 벽동의 완월루,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게 옛모습그대로 훌륭하게 꾸려진 해주의 부용당과 강계의 인풍루, 안주의 백상루…

조국의 최북단 온성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 개성의 송악산일대와 동서해의 작은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은 은은한 달빛세계에 잠기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은 기쁨과 환희에 넘칠것이다.

그러나 뜻깊은 이해 두동실 떠오른 보름달을 바라보는 인민의 정서는 류다르다.

주체의 위성과 더불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며 달맞이를 하는 우리 인민들이기때문이다.

보름달 떠있는 저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요즈음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는것이 버릇처럼 되였다고 한다.

인민의 행복싣고 우리의 은람비행기들이 쌩쌩 날더니 얼마전에는 또 그 푸른 하늘로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가 솟구쳐올랐다.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 그런데 오늘은 그렇듯 희망넘치고 창창한 미래 펼쳐진 저 하늘에 이 땅의 온갖 행복 담아 싣고 두둥실 보름달이 뜨게 되였으니 우리의 하늘은 정녕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뜻깊은 이 명절에 달맞이하는 사람들의 정서는 그토록 류다른것이리라.

함흥색공화국기가 그려진 내나라 위성의 령역이 더더욱 넓어지고있는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오른 밝은 보름달을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행복속에 바라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이렇듯 매일, 매 시각 아름다운 삶을 누려가고있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

그것은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계시여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일심단결의 대화원, 자력자강의 더더욱 찬란한 미래이거니 정월대보름날의 달빛이여, 희망찬 내 조국강산에 밝은 빛을 뿌려다오.

그러면 온 나라 방방곡곡 행복의 창가마다에 소리없이 내리는 달빛을 보며 우리 인민은 마음속진정을 터치리라.

사회주의 그 품을 떠나선 못살아, 원수님품이 제일로 좋아!

본사기자 오 은 법

소중한 향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민족의 향취 넘치는 특색있는 봉사로 흥성이는 수도의 거리거리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곳이 있다. 고구마와 밤굽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오는 군밤, 군고구마매대들이다.

얼마전 락랑구역채파도매소 관문2파일남새상점의 군밤, 군고구마매대에서도 아침부터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길줄 몰랐다.

매대를 찾는 손님들을 반겨맞으며 판매원 김성화, 오은정동무들이 싹붓이 하는 인사말은 얼마나 친근한가.

정오2파일남새상점의 군밤, 군고구마매대에 어려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한 로인이 찾아왔다.

《손자애들이 하는 말이 군고구마는 매대에서 받은 즉시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나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로인의 곁에 둘러서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판매원 정애철, 김영순동무들이 즐거운 미소를 지으며 수긍했다.

《아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군고구마는 매대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매대옆에 손님들이 군고구마를 들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윽한 민족적향취를 더해주며 류다른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는 군밤, 군고구마매대, 그 앞에서 군밤, 군고구마를 받아드는 사람들의 입가에 절로 웃음꽃이 핀다.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는 우리 생활의 아름다운 향기이다.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군밤, 군고구마향기에 깃든 어버이사랑이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시 곳곳에서 밤과 고구마를 구워 팔아 냄새가 나게 하고 시민들이 군밤, 군고구마를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것이 정양의 풍경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도시민들이 맛있고 영양가높은 군밤, 군고구마를 맛볼수 있도록 해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상한것이 있을세라 손수 밤알들을 헤개가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며 군밤, 군고구마향기가 사회주의향기로 풍기고있다.

그 소중한 향기를 우리 당의 따사로운 사랑의 숨결로 새겨안으며 인민들이 피우는 즐거운 웃음꽃이 수도의 거리를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본사기자 조 경 철

혁명의 붉소리 높이 울려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데 이바지해 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예술선동사 중앙예술경제선전대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두 로당원의 한 모 습

‖ 만경대구역 삼흥2동에서 사는 김금녀, 선우금순녀성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한모습이고 순란한 길을 걸을 때도 시련에 찬 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한모습인 그런 충신이 필요합니다.》

20여년전 봄 어느날 먼동이 터오는 이른아침 만경대탄광공장으로 뻗어간 도로를 정히 쓰는 녀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만경대구역 삼흥2동에서 사는 김금녀, 선우금순녀성이였다.

한마을에서 살고있는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매일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려차례 다녀가신 이 길을 더 깨끗하게 거두기 위해 애썼다.

그러면 그해 7월 천만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두 녀성은 가슴이 터지는듯한 아픔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렀다. 그러느라니 지나온 나날이 돌이켜졌다.

제땅 한뙈기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금녀네 12남매중 열명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다나니 그와 남동생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봉낭을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그는 비로소 사람대접을 받으며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었다.

뭄겁에도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 자식 6남매를 부럼없이 키웠다.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그 정신으로 복무의 나날을 이어가는 총련 남천의 부사수가 되어 수십년동안 군인가족생활을 하는 나날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은 늘 그의 곁에서 떠날줄 모르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군 하였다.

제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그들은 당과 수령을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한생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결의를 가다듬였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시련의 나날에도 그들의 걸음은 매일과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 그리고 대성산혁명렬사릉에로 이어졌다.

언제부터인가 김금녀녀성에게는 이런 버릇이 생겼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방향을 향하여 90°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는 버릇이.

공장에서 일하는 딸과 사위와 함께 정성껏 꽃을 피워 아름다운 다발을 엮군 하였다.

그렇게 키운 꽃을 안고, 정성껏 마련한 판리도구들을 안고 두 녀성은 만수대언덕으로 향하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했을 때 그들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애써 누르며 송이송이 충정의 꽃밭에도 노래가 울려나왔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

그러자 김금녀녀성이 조용히 노래를 이어받았다.

…

제국주의침략자를 때려부시고

…

이렇게 그들은 영생의 언덕에서 어린 혁명선렬들을 바라보며 한계단 또 한계단 올랐다.

그날 판리도구들을 정히 안고 80나이를 가까이하는 로인들답지 않게 계단을 오르는 두 녀성을 보며 혁명렬사릉보존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감동은 얼마나 컸던가.

인생의 청춘기에도 로년기에도 변함없이 생의 자욱자욱을 충정의 마음으로 수놓아가는 김금녀, 선우금순녀성.

그들의 삶은 말해주고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을 한마음, 한모습으로 받들라고.

본사기자 현 경 철

창조자의 증표 — 명제품

이름만 불러보아도 민족의 넋과 정취가 가슴부듯이 어려와 무심히 대할수 없는 우리의 고려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성고려인삼의 신기한 약효와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조선찹쌀의 구수한 맛이 결합된 기능성 술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가슴뜨거운 사연이 여기에 깃들어있다.

존엄높은 우리 조국을 태표하는 국주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대동강식료공장에서 만든 고려술을 몸소 맛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장군님의 그 뜻을 받들어 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리하여 당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인삼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더 잘 살리고 민족의 전통음료인 숭늉의 맛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렇듯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고려술을 만들어냈던것이다.

지난해 독특한 맛과 향기, 뛰여난 약리적효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외국인들속에서도 인기를 끌고있는 고려술에 12월15일품질메달이 수여되였다.

그 메달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민족의 존엄과 정기를 온 세상에 떨쳐가려는 대동강식료공장의 로동계급에게 안겨진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상징이다.

본사기자 승 철 진

숭고한 조국보위정신이 이런 기적을 낳았다

화상당한 영예군인을 소생시킨 평안북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도안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은 조국보위초소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전투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한 혁명전사들이며 우리 당이 아끼는 보배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성스러운 조국보위의 길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런 속에서 뜻밖의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당하였던 영예군인환자를 소생시켜 다시 코앞에 세운 평안북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과 도안의 청년들의 소행이 전해져 만사람을 감동시키고있다. 정녕한 영예군인을 위해 바쳐진 참다운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사는 공민들의 조국보위의 정신이 얼마나 숭고하며 우리 군인들의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말해주고있다.

* *

지난해 7월 어느날 평안북도인민병원으로 최중증화상환자가 실려왔다.

전신 72% 2—3도화상 및 화상성쇼크 3도인 환자의 생명지표는 명이나 다름없었다.

《이름은 최철수, 영예군인학원 학생입니다.》

직업의사의 이 말이 병원의료일군들을 더욱 긴장시키였다.

긴급소집된 병원의사협의회에서도 영예군인이라는 말이 자주 튀어나왔다.

병원 기술부원장과 일반외과 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치료력량이 무어졌으며 최선의 치료대책들이 속속 취해졌다.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제2의학부 외과학총론강과의 교원들도 스스로 치료에 합세하였다.

긴장한 치료전투로 한초한초가 흘렀다. 조국보위의 길에 한몸바친 영예군인을 기이이 소생시킬 불같은 일념이 흐르는 분과 초에 푸접게 실려있었다.

《얼마간 되긴할것 같지 못하오. 전투요.》

담당의사 류창일동무의 전화였다. 담당간호원 림은희, 간호장 김명옥, 간호원 김은주동무들의 집에서도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어느날 자정이 훨씬 지난 깊은 밤이였다. 영예군인환자의 호실로 들어서면 일반외과 과장 최병주동무는 무춤 굳어졌다. 벽시계를 떠어본 그는 림은희동무에게 환자를 자기에게 맡기고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조용히 일렀다. 사양하는 그에게 수저를 들려주던 최병주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수저를 쥐지 못하는것이였다. 오랜 시간 환자를 부축하고있다나니 그의 팔에 강직이 왔던것이였다.

과장은 딸과도 같은 그에게 물었다.

《힘들지?》

그러자 림은희동무는 한말을 꼭꼭 주무르다 말고 살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영예군인환자를 맡겨주어서…》

머칠째 환자결에서 밤을 새우는 림은희동무에게 어서 눈을 좀 붙이라고 말하려던 최병주동무는 목이 딱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생명이 경각에 이른 환자의 결에서 며칠밤을 새우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것이 아닌가.

그 시각 치료조를 책임진 최병주동무는 멀리에 있는 영예군인의 가족들은 물론 신의주시민들 아니 온 나라 군민이 자기를 지켜보는것 같아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다. 조국보위의 길에서 피흘려 싸운 영예군인들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주신것 있는 온갖 은정을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숭엄히 어려왔다.

그는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외웠다.

《우리 영예군인을 꼭 살려내기요.》

그것은 온 병원집단의 하나같은 결심이기도 하였다.

최철수동무에 대한 치료전투가 시작된지 한달이 가까와오던 여름날 담당의사인 류창일동무는 입원실문고리를 쥔채 한동안 망설이였다. 도산원에 입원한 안해가 구급으로 평양산원에 후송되게 된다는 소식을 받았던것이다.

당분간 환자를 인계할수도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면 류창일동무는 서둘러 머리를 흔들었다.

(전투장에서 피흘리는 병사를 인계하고 뒤전으로 물러선 군의가 있었는가.)

이것은 류창일동무의 심정뿐이 아니였다.

영예군인환자를 대할 때면 모든 의사, 간호원들의 감정은 승엄해지군 하였다. 마치 지켜선 초소가 한알이 비발치는 격전장처럼 생각되였고 자기들은 쓰러진 병사를 일으켜세워야 할 야전군의처럼 느껴졌다.

의료일군들이 야전군의가 되여 환자의 소생과 치료를 위해 정성을 바쳐가고있을 때 병원의 김성숙동무에게 남천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였다.

《온 병원이 영예군인을 위해 뛰는데 나도 뭔가 해야 할게 아니예요.》

그날 그의 집에서는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새날이 밝도록 올려나왔다.

한 영예군인을 위한 치료전투, 이것은 의료일군들만의 사업이 아니였다.

그가 입원한 사실은 즉시 도당책임일군에게 보고되였고 그 날부터 도당위원회의 하루사업총화에는 영예군인치료정형이 첫페지로 올랐다.

영예군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은 신의주시에 파다하게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의 호실로 찾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무가 완쾌되였다는 소식을 기다리고계신다고 절절히 말해주던 도당위원회일군들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하루빨리 자리를 차고일어서라고 힘을 주던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 도안의 각 대학 청년동맹일군들,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가 아니라 병원을 찾아와 혁명군가도 불러주던 압록강뗏목의 김진옥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며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혈육》들을 맞고보낼 때마다 환자는 격정에 목메이군 하였다.

《도대체 제가 뭐길레…》

최철수동무의 손상당한 피부를 이식하여야 하였다.

1차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신의주제2사범대학에서만도 300명의 대학생들이 펼쳐나섰다. 평북종합대학과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신의주영예군인학원의 일군들과 학생들도 앞을 다투어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발길을 돌릴념을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앞장선것이 다름아닌 제대군인대학생들이였다.

《영예군인은 우리의 전우입니다. 응당 우리의 피부부터 먼저 떼야 합니다.》

다른 대학생들도 결코 뒤지려 하지 않았다.

《우린 아직 전호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이란 말입니까. 우리도 그의 혁명동지입니다.》

뒤늦게야 알고 병원으로 달려온 학생들도 있었다. 환자와 제일 가까운 친구인체 하면서 앞줄에 끼워야겠는데 이름을 모르는게 문제였다. 그들이 조용히 환자의 이름을 물었을 때였다.

《우리도 이름은 모르오. 영예군인이라는것밖에는…》

수백명에 달하는 그 청년대학생들속에 영예군인의 이름을 알고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을 내댔다. 귀중한 혁명동지, 전우를 위하여.

대학생들이 저마끔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겠다고 싱갱이질을 하고있을 때 수술장안에서는 병원의 일군들과 집도자들이 차례로 수술대에 오르고있었다.

지난해 9월 2일 류창일동무가 환자에 대한 마지막수술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수술실을 나설 때였다.

의사, 간호원들이 그를 에워싸며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축하합니다!》

의아해하는 류창일동무의 손을 과장 최병주동무가 꼭 잡았다.

《창일선생, 선생의 아주머니가 오늘 평양산원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누만.》

그로부터 며칠후 류창일동무는 파안의 의료일군들이 안겨준 꽃다발을 안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였다. 류창일동무에 이어 과장 최병주동무가 파를 대표하여 산모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원래 세대주의 꽃다발은 산원에서 받아야 제격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자 류창일동무의 안해는 단잠에 든 자식들에게 눈길을 주며 이렇게 속삭이였다.

《처음에는 서운한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예군인의 치료를 담당하여 몹시 바쁘다는 사실을 안 산원의 의사선생님들과 환자들까지 저마다 자기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 주머니들은 나날이 늘어났다. 매일 저녁이면 그 주머니들을 풀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함께 살던 며느리는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그의 의문이 풀린 것은 다음해 이른봄이였다.

어느날 김금녀녀성이 정히 간수했던 그 주머니들을 하나하나 풀었다. 그 주머니들에서는 뜻밖에도 정히 고른 꽃씨들이 나왔다. 그 꽃씨들을 뜨락의 터밭에 정히 뿌리던 날 김금녀녀성이 손자인 대국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꽃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보람도 있단다. 그러느라면 사람이 참되게 사는 법도 배우게 되느니라.》

이런 일은 선우금순녀성의 집에서도 있었다. 그는 만경대탄광공장에서 일하는 딸과 사위와 함께 정성껏 꽃을 피워 아름다운 다발을 엮군 하였다.

그렇게 키운 꽃을 안고, 정성껏 마련한 판리도구들을 안고 두 녀성은 만수대언덕으로 향하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했을 때 그들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애써 누르며 송이송이 충정의 꽃밭에도 노래가 울려나왔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

그러자 김금녀녀성이 조용히 노래를 이어받았다.

…

제국주의침략자를 때려부시고

…

이렇게 그들은 영생의 언덕에서 어린 혁명선렬들을 바라보며 한계단 또 한계단 올랐다.

그날 판리도구들을 정히 안고 80나이를 가까이하는 로인들답지 않게 계단을 오르는 두 녀성을 보며 혁명렬사릉보존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감동은 얼마나 컸던가.

인생의 청춘기에도 로년기에도 변함없이 생의 자욱자욱을 충정의 마음으로 수놓아가는 김금녀, 선우금순녀성.

그들의 삶은 말해주고있다.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을 한마음, 한모습으로 받들라고.

본사기자 현 경 철

최철수동무가 도인민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한 기간은 연160일간을 헤아린다.

그 나날 정밀한 영예군인환자를 놓고 수십차에 걸친 협의회가 열리였고 수많은 피와 약물들이 보장되였다. 여기에 몇줄 안되는 자료가 있다.

병원의사협의회 12차
과의사협의회 30여차
혈액 4 600ml
각종 수액 350L

…

이 자료들은 최철수동무의 병력서와 중환자판찰표에만 남아있을뿐 그 어디에도 기록되여있는것이 없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인들 일어나지 않으랴.

완치되여 병원문을 나서는 최철수동무를 온 병원집단이 바래워주었다. 최철수동무는 눈물을 머금고 말하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민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였다.

태를 묻은 귀중한 이 땅을 지켜, 보살피며 키워준 고마운 품을 위해 몸을 바치는것은 공민의 의무이전만 바로 그 길에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이라고 온 병원이 아니 온 도가 떨쳐나 정성을 바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조국보위에 바친 삶, 그것은 한생토록 조국과 인민이 잊지 않고 떠받들어야 할 삶이기에.

이런 고마운 품이 있어 우리 군인들은 조국보위의 길에 귀중한 청춘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춤가락도 찾아주시며

온 나라에 민족의 정서와 향기가 한껏 차넘치고있는 지금 우리 인민 누구나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온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주시고 민족의 찬란한 문화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신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숭고한 애국의 업적이 있어 우리의 아름다운 민속전통들이 더욱 꽃피고 민족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도 열려지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겨가신 사색과 령도의 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대동여지도〉와 〈리조실록〉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와 같은 불후의 교전적로작을 발표하시여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그를 위해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민족성이 그대로 비껴있는 민족문화유산들을 발전풍부화시킬수 있었으며 민족적존엄과 자부심을 만방에 떨치며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문명개화기를 긍지높이 맞이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은 조국과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민족유산들을 옳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온갖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천리혜안의 예지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74(1985)년 3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대 및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시대적미감에 맞는 훌륭한 음악무용과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담화에서 민속무용을 발굴하고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와 무용작품창작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민속무용에서 지방적색채를 살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민속무용 《돈돌라리》에서 음악의 성격부터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춤가락도 힘있게 될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민속무용은 인민들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하여 창작되고 전해오는 무용으로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예술적재보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춤추기를 매우 즐겨하였으며 그 바탕에 농악무, 부채춤을 비롯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민속무용들을 수많이 창조하여왔다. 그중에는 민속무용 《돈돌라리》도 있다.

《돈돌라리》춤은 함경도의 동해바다가 지역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 지방특유의 민속무용이다. 그러던것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자주적인 새 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동틀 날이 오리라》라는 말이 뜻여진 《동틀날》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서 대중적인 춤으로 추어졌다. 당시 함경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되여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행복하게 살날이 동터올것이라는 확신을 담아 이 춤을 추며 유격대원호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적색채가 매우 진한 민속무용 《돈돌라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담화에서 춤과 음악의 특색을 잘 살릴수 있는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속무용에서 지방적특색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은 마땅히 어느 지방의 풍속을 보여주는것인지 똑똑히 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민속무용작품들이 발굴되여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민속무용 《돈돌라리》에 대해서도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형상하여 잘 살린다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며 무용창작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래의 《돈돌라리》의 음악과 춤가락을 살리면서 그것을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어깨춤이 절로 나고 흥취나는 특색있는 춤으로 완성되여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민속무용들을 지방적특색이 살아나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무용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정녕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주체92(2003)년 6월 어느날 봉산군 은정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농장원들이 출연하는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보아주시고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재부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정가를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처럼 뜨거운 애국의 손길아래 우리의 민속무용, 민족전통은 자기의 모습을 훌륭히 되찾고 더욱 개화만발하게 되였다.

하기에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예술을 본 남녘의 겨레들과 정론가들은 《민족예술의 혼 주소와 미래를 다시금 명백히 알수 있었다. 민족예술도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세계적인 예술로 된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라고 한결같이 격정을 터친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활짝 꽃피워주시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을 적극 추동해나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온 겨레는 뜨거운 경모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민속명절날들이 오면 평양의 모란봉과 대성산을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에 꾸려진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 민족적선률에 맞추어 고유한 민속무용의 춤가락들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인민들의 기쁨에 찬 모습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환희를 그대로 담고있다.

김 철 남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는 진정한 조국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외세의 강점과 지배하에서 민족의 넋이 시들어가는 남조선과는 너무도 판이한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들은 찬탄의 목소리를 한껏 터치고있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민족의 참모습을 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남이 사는 네 나라〉, 이것이 이남의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네것이면서도 사실상 네것이 아닌 남의 땅, 선조들이 창조한 유산들이 외세의 탐욕과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무참히 락탈, 파괴되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이남이다. 자기의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남과는 달리 이북에서는 자기의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민족적정서와 요구에 맞게 꽃피우고 풍미해가고있다. 이북에서는 조상전래의 유적, 유물 등 유산들이 끊임없이 조사발굴되고 훌륭히 복원되여 민족의 향취를 풍기고있을뿐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미풍량속이 개화만발하고 민속전통이 참답게 살아숨쉬고있다.》

인천의 한 언론인은 어느 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텔레비죤이나 방송은 물론 각종 출판물들과 거리의 간판들 그 어데서나 외래어를 도지히 찾아볼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고있는 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가장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위인들의 두터운 민족문화어보존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다.》라고 격정을 터쳤다.

서울의 한 인사는 동료들에게 정양을 다녀온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남에서는 서양풍, 왜풍에 휘말려 단일민족의 혈통이 흐려지고 민족문화와 전통이 흔적없이 사라져가지만 이북은 다르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께서 제시는 정양은 민족의 혈맥이 용솟음쳐 높뛰는 민족성의 대화원이다. 이북에는 분명 민족본연의 모습,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있고 고유의 멋과 향기가 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의 맥이 력력한 이북이야말로 민족의 정기와 얼이 살아있고 악동하는 진정한 내 나라이다!》

남녘겨레들이 우리 공화국을 《내 나라》, 《내 조국》이라고 격조높이 웨친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겨레는 에로부터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로 뜻과 정을 나누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고 빛내여온 슬기로운 민족이다. 하지만 력사가 유구하고 문화가 찬란하며 이어온 전통이 우수하다고 해서 저절로 민족성이 고수되고 발전하는것은 절코 아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위대한 민족으로 존엄을 떨칠수 있으며 자기의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탁월한 령도에 의해 우리 공화국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고수구현되여왔다.

지금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손길아래 민족성의 아름다운 화원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이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한없이 동경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자유기고가 정주연은 자기의 글에서 《조국은 사람들의 운명을 맡아 지켜주고 빛내주는 위대한 품이다. 하다면 우리의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그 대답을 이북에 펼쳐진 현실에서 찾는다.

이북은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고 민족적존엄이 빛을 뿌리는 민족의 성지이다. 이북은 민족이 안겨살 행복의 요람이며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맡아안고 빛내여갈 위대한 품이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고수구현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보면서 민족의 창창한 앞날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터친 송가음악회, 승리의 음악회》, 《평양의 힘을 페부로 느꼈다》

광명성절경축음악회 《2월의 봄》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미동포 예술인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축음악회 《2월의 봄》이 13일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머르킨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을 맞으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우주만리에 높이 떨치고 불멸의 애국헌신으로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대강국을 일떠세우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열풍이 온 누리에 뜨겁게 굽이치는 가운데 미국 땅에서 또다시 태양칭송의 음악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멥찬 추위를 무릅쓰고 극장으로 모여왔다.

각계층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 유엔주재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는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승리의 길》로 시작되였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행성우에 빛을 잃었던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려세워주신 절세위인, 인류의 대성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어려있고 시련의 천만산악 헤쳐넘으며 력사의 돌풍속에서 더욱 억세어지는 강용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혁명신념이 맥박치는 관현악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담대한 기상을 담은 장중하고 기백있는 선률에 심취된 장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는 관현악 《발걸음》과 클라리네트와 관현악 《불타는 소원》이 울려퍼졌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백두산대국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그이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천만이 굳게 뭉친 혼연일체의 화폭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동포들을 비롯한 관람자들은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고 《대단하다!》, 《잘한다!》고 웨치며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그네뛰는 처녀》 등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와 락천적인 생활모습을 반영한 노래들과 외국고전음악들도 연주되였다.

공연을 본 외교관들과 미국인들, 재미동포들은 최고의 공연이였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 평양의 힘을 페부로 느꼈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령송가를 울릴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우리 조국땅에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이 터친 송가음악회, 승리의 음악회》라고 토로하며 흥분된 심정들을 걷잡지 못하였다.

전범국의 《평화》 타령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제9항공단이 새로 조직되였다. 40대의 《F—15》전투기로 구성된 항공단은 오끼나와현 나하기지에 둥지를 틀었다. 이보다 앞서 방위장비청은 미쓰비시중공업회사가 제작한 스텔스전투기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전투기는 앞으로 지상활주시험 등을 거쳐 오는 3월에 방위성에 납입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일본당국은 《평화유지》의 간판밑에 남부수단에 파병된 륙상《자위대》의 주둔기간을 8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새해벽두부터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은 군국화에로 미친듯이 질주하는 일본의 호전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

짝하면 일본당국자들은 자국이야말로 《정화국가》라고 너털대고있다.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군국주의적망동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라고 떠벌이고있다. 하지만 그따위 간특한 말장난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야말로 《평화》의 간판을 도용해온 전쟁국가, 침략의 온상이기때문이다.

《명치유신》이후 해외침략을 본격화한 일본반동들은 《평화》의 간판을 내들고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이어 만주와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무차별적인 파괴와 대량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일찌기 일본지배층이 평화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만을 추구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패망후에도 《평화국가》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속에서는 재침야망만이 꿈틀거렸다.

《자위》의 미명하에 얼마 안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오늘 서방세계에서 미군 다음가는 침략무력으로 번모된것은 전적으로 군국화를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온데 있다.

지난해 《일미방위협력지침》과 《안전보장관련법》개정으로 해외진출의 합법적공간을 마련한 일본은 지금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은 섬나라이다. 이에 따라 지상무력보다도 해상과 공중무력강화에 발광하고있다.

제9항공단의 조직으로 보강된 《F—15》를 보아도 핵무기까지 적재할수 있는 장거리전투폭격기이다. 제공권장악임무수행에서 6대의 《F—15》와 맞먹는 《F—35》를 다음세대 주력전투기로 선정한것 역시 공중우세를 보장하자는데 있다. 레이다에 잘 걸리지 않으며 습격, 폭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F—35》다목적스텔스전투기를 갖추어야 항공《자위대》의 전투능력을 보다 높이고 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넓은 범위로 확대할수 있다는것이 일본의 타산이다.

현 집권층이 군사비를 최대금모로 늘이며 신형무장장비의 개발과 구입에 미쳐날뛰는것은 어제날의 전범국이 또다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고있음을 세계앞에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나 같다.

일본이 남부수단에 파병된 륙상《자위대》의 주둔기간을 무려 6차례나 연장하며 《유엔평화유지활동》참가에 극성을 부리는 목적도 해외팽창야망과 직결되여있다.

《자위대》무력을 완전한 공격형무력으로 전환시킨 일본에 있어서 해외군사작전권을 보장하는것은 재침실현의 필수적요구로 되여왔다.

일본반동들이 페르사만전쟁에 자금만 대고 파병하지 않은것은 《치욕》이였다고 궤치며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의 채택으로 해외파병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은 우연하지 않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의 해외파병범위는 계통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상전인 미국이 내든 《반테로전》에 적승하여 일본지배층은 해외공격형의 군사전략을 짜고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본격화하였다.

파병대상도 륙상《자위대》로부터 항공 및 해상《자위대》로 확대하였다. 《자위대》무력의 실전경험을 쌓고 군사적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닦아 재침야욕을 용이하게 달성하자는것이다. 그런즉 얻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이 외워대는 《정화》타령은 뒤집어놓은 전쟁타령이다.

일본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화》를 부르짖으며 침략과 전쟁에 팡둥하였던 일제가 그러하였던것처럼 변천된 시대를 외면한채 패망의 앙갚음속에 재침에로 질주하는 군국주의일본에 차례질것은 과멸밖에 없다.

일본반동들은 장탈 그자체가 자멸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 금 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파렴치한 정치적도발

일본경찰당국 총련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 동포상공인 체포

일본경찰청이 18일 교또부, 가나가와현, 아마구찌현, 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경찰대를 내몰아 총련산하의 경제단체 사무소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아침 경찰당국은 한 동포무역회사 사장이 2014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 공화국에 의복류,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부정수출하였다고 하면서 그를 《외환법》위반혐의에 걸어 체포하였다.

이와 련결시켜 경찰당국은 수사원 50여명을 내몰아 무려 4시간 30분에 걸쳐 조선상공회관에 있는 총련 도쿄도상공회 경리사무소와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사무소를 강제수색하였다.

이번 강제수색놀음은 일본 아베정권의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책동의 일환으로서 공화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욱 박해하며 총련을 기어이 말살하려는 엄중한 정치테로행위이다.

더우기 동포무역회사의 《외환법》위반혐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에 대한 불법무도한 강제수색을 감행하고 협회의 자료들을 부당하게 압수한것은 조국파의 합영, 합작사업의 내부사정을 탐지하며 나아가서 총련의 내부실태를 조사장악하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단독제재를 실시할데 대한 조치를 결정한것과 때를 맞추어 감행된 폭거야말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탄압이며 인권유린만행이다.

일본경찰당국의 불법적이며 기습적인 폭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강력히 항의해나섰다.

총련중앙은 긴급대책협의회를 소집하고 중앙의 담당일군들을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와 상공회관안에 있는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 파견하여 강제수색에 대비한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중앙단체와 도쿄 등의 총련일군들을 조직동원하여 상공회관앞에서 경찰당국의 천만부당한 정치적탄압책동을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총련중앙은 이번 일본경찰당국의 천만부당한 정치적탄압책동을 절대로 규탄하는 항의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탄압과 반인륜적인 인권유린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로 말하면 재일동포들의 합영, 합작, 카공무역 등 경제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거래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총련의 기관이다.

협회는 지금껏 공화국의 합영, 합작법에 따라 조국파의 합영, 합작, 카공무역 등의 경제교류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도모하여왔으며 일본경제계와의 교류사업을 벌리고있다.

더우기 동포무역회사는 합영, 합작사업과 련관이 없는 개별동포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총련과 련관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저들의 모략적인 《각본》에 따라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적대의식을 더한층 고조시키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동포조직인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탄압만행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경찰청의 파쑈적폭거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목을 끄는 에네르기개발동향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크게 의존하여오던 화석연료위주의 에네르기구조를 깨뜨린 에네르기구조로 바꾸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태양에네르기도로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총길이가 1 000km인 태양에네르기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려 하고있다.

태양에네르기도로는 일반도로들처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매우 얇은 태양전지판들을 보도블로크처럼 깔고 자동차들의 중량에 견딜수 있게 그우에 수지재료로 만든 교강도투명판을 덮어주는 방법으로 건설한다.

태양전지판은 태양에네르기를 전기에네르기로 전환시킨 다음 지하에 설치된 충전장치를 통해 도시전력망에 보낸다.

교통하부구조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이 나라의 어느 한 회사는 국가태양에네르기연구소와의 협력하에 폴리수지로 두께가 7mm밖에 안되는 작은 태양전지판들을 련결시킨 후 이것을 도로우에 부착시켰다. 이와 함께 태양전지판의 투명한 보호층우에 알갱이구조를 첨가하여 일반도로면과의 부착력이 올지되게 함으로써 자동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였다.

태양에네르기도로에서 자동차를 100만번 통과시켰지만 도로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나라의 환경 및 에네르기판리부문이 계산한데 의하면 길이가 1km인 태양에네르기도로는 주민이 5 000명인 작은 도시의 공공조명용전기를 보장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태양에네르기리용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생산원가가 낮아짐에 따라 태양에네르기도로가 널리 보급될것으로 보고있다.

화석에네르기를 대신하는 에네르기

오늘날 수소는 중요한 재생에네르기자원으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수소는 공인된 깨끗한 에네르기로서 천연가스 다음가는 기본에네르기로 크게 기대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수소에네르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다그쳐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수소연료자동차를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이 자동차는 연료통에 액화수소를 거뜩 충전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연료를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650km이상 주행할수 있다.

현재 수소연료자동차의 연료원가는 휘발유와 맞먹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떨어질것이라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물을 동력원천으로 하는 모터찌클을 만들어냈다.

이 나라의 한 기계공의 착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터찌클은 물통에 전류를 통과시켜 전기분해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 다음 만들어진 수소가스를 가지고 기관을 돌린다고 한다. 여러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1L의 물로 많은 거리를 달릴수 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수소에네르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에네르기로 광범히 리용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7-61029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